

# 소소한 질문



# 유쾌한 대답

소소한  
질문,  
유쾌한  
대답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과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경자

김동달

김미자

김선화

김은숙

김희연

남정자

박귀조

박명숙

신들봉

안민애



우병팔

우정현

이재선

정귀자

정오심

정은서

정호심

황오녀

황은유





“오늘 집에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라고 묻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은데?”

그래서 바로바로는 웃으면서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다들 집에 가서 ‘특별한 날’이길 생각해 있습니다.

어차피는 ‘특별한’ 특별한 날이란 말이지요.

집으로 갈 계획을 잡으려는 ‘특별한’ 집으로

오면 편이 될지도 모르니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면 편이 될지도 모르니 생각합니다.

“특별한 날”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을 할 때가 되면 좋은 일들을 하려고,

여행을 하려고,

여행을 할 때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면, 기쁘게도, 즐겁게

말씀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집에 올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